

화단 및 조경용 구절초 재배기술

Propagation and Cultivation of *Chrysanthemum zawadskii* var. *lactilobum*
Used for Bedding and Landscape Plant.



송 정 섭 농업연구관, 이학박사
(031-290-6203, songjs@rda.go.kr)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과명 : 국화과(Compositae)
- ▶ 학명 : *Chrysanthemum zawadskii*
var. *lactilobum*
- ▶ 일명 : いわぎく
- ▶ 분류 : 다년초



(사진1. 구절초 개화광경)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할 무렵은 우리 자생 구절초가 제 색깔과 제 고유 향기를 맘껏 뽐낼 때이다. 구절초가 도로변에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8 서울올림픽때 성화봉송로에 심겨지면서부터이다. 실제 구절초로 가꿔진 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선명한 꽃색과 향기에 탄성을 자아낸다. 또한 우리 꽃을 아는 사람이면 구절초가 우리 산야와 도로변에서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1. 종류 및 생리생태

구절초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써 우리나라에 15종(생태형) 정도가 자생하는데 구절초, 산구절초, 울릉국화, 바위구절초, 포천구절초, 한라구절초, 서홍구절초, 대구구절초, 영덕구절초, 낙동구절초, 제주구절초 등으로 같은 종이면서 생태형이 다른 경우도 많다. 구절초류는 추위나 더위

에 강하고 음지에도 강한 편이다.

형태는 잎은 쑥과 흡사하고 어긋나게 달리며 키는 종류에 따라 15~70cm까지 다양하다. 줄기는 국화 줄기와 비슷하나 가지가 많이 없고 가늘게 자라 약한 산들바람에도 잘 흔들리는데 이것은 구절초가 지닌 또 하나의 매력이기도 하다. 꽂은 초가을부터 가지 끝에 1개씩 피고 꽃잎은 18~22매 정도가 돌려 핀다. 연분홍에서 흰색을 띠는 꽃잎이 실상은 가화(假花)라는 것이다. 이 가화라는 것은 발생학적으로 보면 꽃잎이 아니라 별이나 나비같은 방화곤충을 유인하기 위해서 원래 꽂받침이었던 것이 꽃잎으로 변한 것을 말한다. 생물 고유의 종족 보존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절초는 용도가 다양하다. 예로부터 어린 새싹은 나물로 이용하였고 여름의 연한 잎은 떡에 넣어 모양을 내며 가을의 꽂은 화전을 부치고 불로장생의 술을 빚어 마셨다고 한다. 특히 식물체 전체는

표 1. 구절초류 종자발아율

학종	초장(cm)	꽃색	종자발아율(%)
구절초	50 - 90	연분홍	35 - 37
산구절초	60 - 100	백	55 - 62
산국	80 - 100	황	56 - 65

약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건위, 보간, 신경통, 식욕촉진, 중풍, 강장, 부인병 등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번식 및 재배

번식은 씨앗을 파종하거나 삽목 또는 포기나누기를 할 수 있는데 씨앗을 파종해도 아래 표 1과 같이 발아가 비교적 잘 되는 편이지만 꽃을 피우기 까지 만 2년이 소요된다.

씨앗은 가을에 꽂이 지고 꽃잎이 갈색으로 말라 터지기 전에 꼬투리째 따서 말리면 꼬투리가 벌어져 씨앗이 나오는데 이것을 유리병이나 비닐봉지에 싸 냉장고의 냉장실에 보관, 이듬해 봄에 모판에

뿌리면 된다. 모판의 준비는 부엽, 배양토, 모래의 비율을 2 : 3 : 3 정도로 하여 뿌리고 흙을 얇게 뿌려 신문지 등으로 덮어두면 발아가 잘 된다.

구절초의 파종기별 생육 및 개화특성을 보고자 3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파종하고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다. 즉 파종기에 따라 생육량 차이는 크지만 모두 당년에 개화되지 않음으로써 전형적인 다년생 식물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파종 2년차에 모두 개화한다.

한편 종자를 파종하게 되면 많은 야생화 경우처럼 꽃색이나 형태가 다른 것들이 섞여 나오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개인이 가정에서 취미로 하는 경우 재미나는 현상으로 즐길 수도 있겠지만 도로변 식재 등 대규모 조경공사용으로 쓰이는 경우 문제

표 2. 구절초 파종기별 생장반응

파종기	잎신장		초장 (cm)	분지수	지하경 크기		생체중 (g)	건물중 (g)	개화 여부
	잎수	면적 (㎠)			길이 (cm)	굵기 (cm)			
자연조건	31.0	16.1	18.1	8.6	30.0	2.0	180.2	49.5	
3. 27	27.4	14.5	18.6	8.4	49.1	2.0	155.6	41.6	
4. 6	25.6	14.5	16.7	7.6	31.6	2.1	140.6	36.4	
4. 16	25.2	15.7	15.9	6.4	30.2	2.1	164.9	42.9	
4. 26	19.4	21.3	15.7	6.8	26.9	1.7	100.0	23.3	
5. 6	19.6	19.1	18.0	7.0	26.9	1.9	85.4	20.1	미개화
5. 16	17.6	20.6	17.9	7.0	22.5	1.9	111.6	32.9	
5. 26	17.2	25.6	15.2	5.0	21.2	1.9	92.7	20.5	
6. 5	16.6	21.4	14.6	4.0	16.0	1.8	65.2	13.4	
6. 15	15.0	20.6	12.3	3.8	4.1	1.9	41.0	8.6	
6. 25	13.0	14.4	11.5	3.0	4.0	1.9	31.1	3.4	

표 3. 루톤처리 방법별 발근율

처리 내용	발근기간	발근율
삽수채취 30분까지 자연상태보관후 루톤처리	10일	92%
삽수채취 24시간까지 자연상태보관후 루톤처리	11	48
삽수채취 30분까지 물침지후 루톤처리	9	75
삽수채취 24시간까지 물침지후 루톤처리	-	3

※ 삽수채취방법 : 길이 5~8cm, 잎 1~2개를 남기고 하엽제거

※ 삽목용토 : 질석 퍼라이트, 퍼트모스 = 4 : 2 : 4

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당년개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꽃색이 균일한 묘를 얻기 위해서는 삽목이나 포기나누기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다. 삽목이나 포기나누기는 연중 어느 때고 가능하나 삽목은 장마철 이전에, 포기나누기는 이른봄 새싹이 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삽목은 6~8cm 정도로 잘라 모래상자에 끌고 반 그늘에 두면 쉽게 뿌리를 내린다. 뿌리가 내리면 풋트나 화단에 옮겨 심는다. 화단에 심을 때는 20cm간격으로 심는다.

삽목할 때 발근율을 좋게 하려면 표 3과 같이 절단면에 루톤을 처리해 주면 월등히 향상된다.

구절초는 포기가 느는 것이 매우 빠르므로 매년 포기나누기를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옮겨 심은 후 뿌리가 활착되면 줄기의 순을 적십하여 가지를 많게 하는 것이 꽃수를 늘릴 수 있고 키도 낮추어 더욱 아름답게 관상할 수 있다. 가정에서 길러보는 경우 묘종은 현재 많은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으므로 쉽게 구할 수 있다.

구절초는 지하경이 옆으로 뻗으면서 큰 포기를 형성하고 높이 50cm 정도 자라면서 가지끝에 직경 5~7cm 정도의 비교적 큰 꽃을 피우며 꽃의 색깔은 백색, 분홍색, 연분홍색이 있다. 따라서 화단이나 길가에 식재할 때는 꽃의 색깔을 조화롭게 선택하여 식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한편 구절초를 재배할 때 요령은 이 식물이 다른 식물과의 경합에도 약하지만 지나치게 밀식하게 되면 가운데 통풍부족으로 식물자체가 녹아버리던가 상태가 불량해지므로 지나치게 밀생된 부분을 잘 속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구절초와 유사한 종으로 산구절초가 있는데, 이 산구절초는 높은 산 정상부근에 자생하는 식물이지만 낮은 곳에서도 잘 적응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식물자체가 30cm 미만으로 작으면서 큰 포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좋은 조경 지피식물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조경수**

